“오늘날 현실적 교회의 문제는...”

성경에서는 교회가 진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밝힌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근본이라고 말씀한다.

이런 진리가 엄연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가 진리를 찾는데에 초점을 마추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계속 진리를 탐구하고 찾으라고 한다.

찾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계시된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귀 있는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진실로 귀 기울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왜 일어 났을까? 교회안에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연하게 발생한 바리새인들이 많기 때문 이다.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하지 않으며, 자신을 바리새인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레리 오스본 목사가 쓴 '당신의 열심히 위험한 이유' 라는 책의 글을 인용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자신의 신앙에 철저히 헌신했다. 신학적으로도 빈틈이 없었고, 성경본문에 달인이었다. 이해하기 힘든 계명에 대해서도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게 순종했다. 행여 하나라도 놓칠까 두려워 따로 별도의 규칙들을 만들기도 했다. 영적 훈련에 대한 이들의 수용은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업신여길 권리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도 치르려고 하지 않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30-31 쪽)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넘어서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도 첫예배를 준비하며 바리새인들이 우글 거리는 교회로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대히 가르치고... 나 자신 또한 주님의 재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솔선 수범하여 교회를 위해서 누구도 치를 수 없는 대가룰 치르고도 자신의 권리나 명예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하겠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새삼 다짐해 본다. 이제 6 일 남았다...! 어제 새로산 장비 점검과 지역사회에 우송할 전단지를 마쳤다...

첫째로, 셔만옥스 지역에 사는 150 가구 정도의 한인들이 나의 복음적 영역의 첫 목표다.

5 월 3 일 주일 '첫 예배' 에 전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본문이 정해졌다. 결국 마가복음을 택했다. 마가복음 1:14-15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개정판)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개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활동적으로 나타남을 전할거다. 힘차게... 그리고 확신 있게...

제일 먼저 나의 마음을 사로 잡은 말씀은 "요한이 잡힌후" 란 말씀이다. 왜 "요한이 잡힌 후" 였을까? 왜 그때가 되서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요한이 잡힌 후" 부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활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지금 말씀에 의해서 흥분하고 있다. 무엇인가 분명하게 느낄수 있는 성령의 활동하심이 내 영혼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최사무엘목사 목회 칼럼]

〈저작권은 셔만옥스한인교회 Copyright 무단복제 배부 금합니다〉